

2016년 무용수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아카데미 시리즈 Ⅱ

Dreams Start up!

무용수를 위한 행정인력 양성 아카데미



일시: 2016년 6월 27일(월)~ 6월 28일(화)

장소: 예술가의집 세미나실

DANCERS'
CAREER
DEVELOPMENT
 CENTER
(재)전문무용수 지원센터

Dreams Start up!, 무용수를 위한 행정인력 양성 아카데미

■일시 : 2016년 6월 27일 (월) 오후 1시

2016년 6월 28일 (화) 오후 1시

■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세미나실

■주최 :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순서

사회: 장승헌 (재_전문무용수지원센터 상임이사, 춘천아트페스티벌 예술감독)

◆ 1차 교육-2016년 6월 27일 (월) 13:00~ 16: 50

시간	강사 및 교육 분야
13:00~ 13:50	예술경영 I (강사-이창기, 마포아트센터 대표)
13:50~ 14:00	휴식
14:00~ 14:50	예술단체 운영 II (강사-전해웅, 예술의전당 경영본부장)
14:50~ 15:00	휴식
15:00~ 15:50	직장생활과 실무 I (강사-이승미, 올댓스피치앤컨설팅 대표)
15:50~ 16:00	휴식
16:00~ 16:50	직장생활과 실무 II (강사-이승미, 올댓스피치앤컨설팅 대표)

◆ 2차 교육-2016년 6월 28일 (화) 13:00~ 16: 50

시간	강사 및 교육 분야
13:00~ 13:50	무용공연 기획(강사-장승헌, 기획자, 무용평론가)
13:50~ 14:00	휴식
14:00~ 14:50	무용공연 홍보(강사-장광열, 무용평론가)
14:50~ 15:00	휴식
15:00~ 15:50	보도자료 작성(강사- 김세영, 유니버설발레단 공연사업팀 PD)
15:50~ 16:00	휴식
16:00~ 16:50	홍보 기법(강사-김세영, 유니버설발레단 공연사업팀 PD)

DANCERS'
CAREER
DEVELOPMENT
 CENTER
(재)전문무용수 지원센터

DANCERS'
CAREER
DEVELOPMENT
CENTER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공연예술 기획론

장 승 현

공연기획자,
재_전문무용수지원센터 상임이사,
춘천아트페스티벌 예술감독

I. 공연예술 기획론

공연이나 전시회 등 하나의 예술 활동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수많은 종류의 준비 작업이 따르게 마련이다. 이러한 작업이란 창작 예술품과 감상자 사이의 교량 역할을 위한 일들로,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제반 예술 활동은 더 튼튼하고, 더 넓고, 더 효율적인 교량을 필요로 하게 된다. 원시 시대를 벗어나면서 공연예술은, 이를 직업으로 삼는 특정한 사람인 예술가의 손에 맡겨졌고, 이를 보여 주기 위한 제반의 교량 작업, 즉 보여주는 시간, 장소, 볼 수 있는 사람의 선택, 조건 등은 이미 예술가가 아닌 제 3자의 손에 의해 이루어 졌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은 예술작품을 만들어 내는 일 만큼이나 복잡하고, 어려우며 많은 시간과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이다.

공연예술이 실패할 수 있는 조건들은 성공할 수 있는 조건보다 항상 많을 수 밖에 없다. 모든 준비가 완벽해도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공연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광대패나 예술단체가 준비한 공연을 설사 성공리에 마쳤다 하더라도 아직은 완성한 공연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마을이나 공연장을 떠나기 전에 정리해야할 여러 가지 사항 중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공간에서의 다음 공연은 그만큼 어려움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공연예술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기획이란 이와 같은 것으로, 계획에서부터 정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작업을 포함하고 있다. 즉, 기획이란 공연예술 작품이 감상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작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획이란 업무를 맡은 사람은 일의 성격에 따라 매우 다양한 업무를 부여받게 된다. 이를 정리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 1) 기획자는 계획자 (Planner)이어야 한다.
- 2) 기획자는 조직자 (Organizer)이어야 한다.
- 3) 기획자는 흥행사 (Promotor)이어야 한다.
- 4) 기획자는 매니저 (Manager)이어야 한다.
- 5) 기획자는 문화촉매자 (Animator)이어야 한다.
- 6) 기획자는 제작자 (Producer)이어야 한다.
- 7) 기획자는 보고자 (Reporter)이어야 한다.

공연장이나 전시장의 효율적 운영은 전적으로 기획자의 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경우 기획자란 해당 문화공간의 조직 중, 기획 업무를 맡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극장장이나 화랑, 또는 미술관의 관장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중앙이나 지방 행정부의 공무원일 수도 있다. 따라서 기획자에게 주어진 업무와 권한은 제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어떤 기획자는 자신이 속한 문화공간에 대한 모든 권한과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반면, 어떤 기획자는 1년 내내 특정 문화공간의 대관 업무 외에는 권한이 없

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문화공간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누구에게, 어떻게 빌려주는 가도 기획자의 임무이며, 공연예술 큐레이터로서의 중요한 업무이다. 이를 잘 수행함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 준다는 훌륭한 이미지를 얻을 수도 있고, 반대로 아무도 이용하고 싶어 하지 않는 버려진 문화공간으로 혹은 공연장으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다. 기획자로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음식을 기다리는 손님이다. 음식이 변변하지 못한 것이 상을 차릴 수 없는 이유가 될 수 없으며, 먹을 손님이 없을 것이라는 추측은 더더욱 잘못이다. 오히려 매스 미디어의 발달로 세계인의 입맛은 나날이 갈수록 왕성해지고 또 고급화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점은 상을 차리는 사람의 정성이다. 정성을 담아 음식 만들 사람을 고르고, 음식을 담고, 손님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기획자는 항상 지녀야 할 것이다. 또한 무슨 음식을 어떤 그릇에 담아야 좋을지, 상은 어떻게 차리는 것이 좋은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특산물, 계절, 손님들의 조건, 요구 등을 파악해야 하듯이, 공연예술 프로그램의 기획자는 음식을 장만하고 그릇에 담는 데에만 급급하지 말고,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까지 기초 작업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상을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할 것인가라는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공연예술분야에 종사하는 기획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를 수행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주요한 사항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역 분석 - 일반적 특성, 공연예술인과 예술단체, 타 문화공간, 감상자 혹은 관객
2. 문화공간의 자체 분석 - 문화공간의 성격, 규모 및 공간의 특성(공연장, 전시장), 예산
3. 공연 프로그램의 방향 설정 - 문화 공간의 이미지, 프로그램의 유형, 감상자및 관객개발, 공연예술 장르(연극, 무용(발레,) 뮤지컬, 대규모 음악 연주회, 전통예술 인형극, 기타 등)

Ⅱ. 한국 컨템포러리 춤은 진화하고 있는가?

- 공연현장에서 본 현대 한국춤의 실제와 미래에 대한 단상

1. 들어가면서

한국 춤 역사에 대해 한일 합방 이후 일제 강점기를 그 시작으로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다. 물론 전통춤이나 오래된 민속춤의 하나인 농악이나 탈춤과 같은 마당춤, 그리고 굿과 무속춤에 근거한 우리 춤문화 유산의 역사는 이 보다 훨씬 더 오래된 기원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엄격히 말해 공연 양식, 즉 무대와 객석이라는 극장예술의 형식이나 틀을 갖춘 한국 춤의 출발은 바로 1926년 일본의 현대 무용가 이시이 바쿠(석정막)에 의해 서구 모던댄스가 유입된 서울공연을 기점으로 삼는 것이 대세인 듯하다. 근대춤의 시조인 한성준 이후 전설적인 무희 최승희 시대를 꽃피우고 배구자, 조택원 등의 우리춤 선각자들의 발원을 거치며 본격적인 한국 무용가들의 등장과 활동에 의해 스스로 이룩한 근대춤의 풍경은 지금까지도 신무용이란 이름으로 우리 무용사에 당당하게 자리매김 하기에 이른다. <신무용>이 곧 <한국춤>이라는 인식을 정착시키며 오랫동안 다양한 서구 춤 미학과 가능성을 모색하며 이후 한국 창작춤의 토양을 마련하였다. 한편 또 다른 예술적 관점에서 볼 때 신무용은 한국 현대춤의 시초로 인식될 수 있지만 현재 우리가 인정하고 생각하는 전문화된 컨템포러리 춤의 형식이나 미학적 관점에서는 다소 거리가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보자면 우리 춤의 역사는 100여년 남짓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리 길지 않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1950년 한국전쟁이라는 또 하나의 민족적 아픈 역사를 거치며 그 원형의 모습들과 예술가의 활동 지형도까지 변질시키고 말았다. 이런 참혹한 예술적 환경에 도착한 우리 문화예술계의 위상에 대해 위기감을 느낀 정부는 국가가 보존하고 보호하지 않으면 순수 기초예술 분야의 본질적 생태 존립이 어렵다는 취지 아래 각 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1962년, 국립창극단, 국립오페라단과 함께 국립무용단을 창단시키게 되는데 비로서 외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무용가들의 활동 영역이 본격적 궤도에 오르게 된 것이다.

아울러 이듬해인 1963년, 국내 최초로 이화여자대학교에 무용학과가 개설되면서 한국 무용, 발레, 현대무용의 삼분법적 틀이 구축되면서 우리 창작무용계의 크나 큰 밑그림을 그리게 된다. 다음으로 경희대 한양대 등 다른 대학에서도 앞 다투어 무용학과를 신설하며 본격적 대학 아카데미즘 무용시대를 열어 7,80년대 한국춤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는 동안 현재의 컨템포러리 춤의 궤도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필자는 이 지면을 통해 우리 컨템포러리 춤의 역사를 추적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컨템포러리 춤의 역사는 서구의 춤 역사에 비해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며 지난 50여년 동안 한국 현대 사회의 역사적 변동의 휘용돌이 속에서 스스로 다각적인 양상을 보이며 빠르게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를 바탕으로 나름의 창작춤 양식을 갖게 되기까지 드러난 제반 현상들과 그 발전 과제에 주목

하고 최근 현대 한국춤 현장의 전문 영역과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과 전망에 대해 일련의 개인적 소견 및 단상들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2. 누구를 위한 컨템포러리 춤인가?

밀레니엄 시대인 2천년대에 접어 들면서 한국의 창작춤 현장은 질적 양적 성장과 팽창으로 그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변화,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1975년 <한국 컨템 포러리 무용단>과 한국창작춤 단체인 <창무회>의 창단을 계기로 다른 대학 무용과 졸업생들의 가세와 후발주자들이 합세해 급속하게 발전 하면서 아카데미즘의 선두에 자리매김한 대학 동문단체들의 활동은 1980년대 후반, 아시안 게임과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국제 교류 영역까지 확장되기 시작했고 이윽고 2천년대에는 이른바 세계무대 진출이라는 지상명제의 화두를 의욕적으로 실천하는 지점에까지 이르렀다. 특히 1998년 마련된 <서울세계 무용축제>와 2000년 엘지아트 센터 개관, 그리고 2002년 <서울 국제 공연예술제 >시작을 중심으로 세계적 수준의 무용단들이 앞다투어 내한 공연을 가지며 우리 컨템포러리 춤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국내외 정치적 사회적 변화의 물결 속에서 문화예술 정책과 여러 가지 지원사업과 기구 창설을 통해 우리 창작춤계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상대적 폐해까지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 오기도 했다. 이렇듯 지원제도와 관련된 문화예술 정책사안들에 무용계의 관심과 이해타산이 쏠리면서 우리네 민간 전문 무용단체 및 프로젝트 안무가 그룹 작품의 경우 전문적인 창작 시스템이나 예술적 컨템포러리춤의 미학적 성취동기는 오히려 슬그머니 뒷전으로 밀려난 느낌마저 강하게 드러난다. 해서 예술적인 면에서 독창적 진보라고 할 만한 성과나 주도적인 발전적 변화의 모습을 뚜렷하게 드러내지 못한 채 지원금과 정책에 수동적으로 끌려 다니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히 젊은 안무가들은 지원금 제도 의존과 현실적 안주를 위해 순수 무용창작 보다는 다원예술 장르나 뮤지컬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훨씬 더 이해 타산적 측면으로 노출되기에 이르고 있다.

한편 예술적 차원에서 출발한 춤의 발전은 곧 제도적 상황과 연결 고리를 갖게 된다. 그동안 한국 컨템포러리 춤이라는 것이 대학무용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는데, 이른바 세계춤의 흐름에 진입해 활동을 펼치려다 보니 그러한 아마추어리즘의 시스템에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난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교육과 공연이 병행되면서 교육적 성과에 비중이 있었던 아카데미즘 구조에서 어느덧 공연 현장으로 중심축이 이동하였고, 국립발레단이나 유니버설 발레단의 직업 무용단들의 활발한 작품 활동으로 인한 직업화란 측면에 직면하게 된다. 진정한 프로페셔널한 무대나 공연이 아니면 뒤쳐질 수 밖에 없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포화상태가 된 대학 무용과에서 배출된 무용인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숫자가 많아지고 다양해진 반면, 정년이 보장된 교수중심의 동문단체들의 대학 무용은 점 점 노후되고 정체되면서 공연현장에서 대학무용의 위축에 일익을 담당했다. 더 나아가 국가는 공연예술을 21세기 문화산업으로 성장시키려는 제도적 틀을 만들기 시작했고, 관객확보와 대중화를 우선시한 극장이나 아트센터 등 문화예술계 역시 기획과 마케팅이라는 경영적 마인드로 춤정책을 주도하면서 더욱 더 이윤배

반적인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3.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 그 고질적 삼분법 춤의 굴레

해마다 각 대학 무용학과에서 배출해 낸 전문 무용인력들이 전공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전업형식의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유학 및 대학원 진학, 비정규직 신분의 학원 강사, 그리고 결혼과 출산 등 수많은 고급인력들이 현장에서 사라지고 있는 무용계의 안타까운 인력구조적 문제점은 어제 오늘의 현상만은 아니다. 1963년 이화여대 무용학과 설립이후 50년 가까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엄연한 시장논리를 무시한 대학 무용학과의 삼분법의 실기교육은 창작춤을 생산해 내야만하는 안무자와 무용수, 그리고 지도자 및 교육자를 양성시키는 상호 보완이라는 상생시스템과도 너무도 판이한 역 피라미드 모양의 인적 불균형을 초래하기 이르렀다. 안무 작품 경연이나 지원심의 후보 대상 자격 혹은 콩쿠르 심사와 같은 선발이나 중요한 수상인력 선정의 경우, 고질적 삼분법의 굴레는 때로는 장르별 이기심과 적당한 인적 물적 분배라는 민주적 논리를 앞세우며 웃지 못 할 엉뚱한 촌극을 유발시킴은 물론 공연 작품의 완성도와는 상관없는 상식이하의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컨템포러리 춤의 경우, 한국적 현대무용과 현대적 한국무용의 정체성에도 일관성 없이 흔들리며 그 기준조차 모호해진지 오래이다. 한국 무용 전공자들은 여전히 전통 춤사위와 신무용적 춤어휘를 사용한 공연물을 창작춤 안무작품으로 평가 받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발레 전공자 역시 토슈즈만 벗었지 전혀 논리적인 움직임과 텍스트 이해 없이 난이도 낮은 클래식 발레의 동작들을 연결한 결과물로 창작발레 작품을 선보인 다며 스스로 공연 프로그램 안무노트에 버젓이 밝히고 있다. 사실, 현대 한국춤은 오랜시간 대학 무용과를 발판삼아 확장되면서 각자 나름대로 특징적인 스타일을 확립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컨템포러리 춤은 한국 전통춤이나 발레와 달리 오랜 역사를 통해 규범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안무자의 춤스타일과 밀접한데 어느 무용단 (학교)출신이라 하면 그 스타일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대학 동문 무용단의 스타일이란 안무자인 스승, 즉 교수의 스타일을 따르게 마련이었다. 이를테면 한국춤의 경우, 80년대 버선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춤추는 창무회 춤과 구분되는 리을 무용단 스타일, 90년대 경희대 (신무용)스타일, 2천년대 무트댄스 스타일이 한국 창작춤 근간의 주류를 이루며 관심을 모아 왔다. 아마도 이 무용단 소속 단체의 무용수들은 자신도 알게 모르게 하나의 전통으로서 이런 춤 스타일을 고수하려 애쓰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컨템포러리 춤 정신이라면 당연히 서로 다른 여러 테크닉을 배움으로써 자기만의 개성적인 춤을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현대 한국춤 안무자들이 가져야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 생각한다. 또한 춤작품을 창작하는 주체인 안무가를 중심으로 그의 예술성을 중요시할 때 그로부터 다른 것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게 표출되는 장르 역시 클래식이나 전통춤이 아닌 현대 한국춤이다. 이제 부터는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이라는 삼분법적 장르 구분보다는 전통적이며 클래식 테크닉을 고수하는 고전적 춤사위를 추구하는 무용가 스타일인가 아니면 컨템포리적 창작 성향의 안무자 스타일

의 무용가 인지를 선별하는 안목과 지혜가 요구되는 명백한 시점이다. 그리고 이들을 좀 더 신중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자리매김 하는 일견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는 평가 르기식 흑백논리가 아닌 스스로 다른 것을 추구하는 열정과 몸으로 사유하는 진정성이 담겨져 있는 진솔한 움직임과 독특한 춤사위, 그리고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다른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하려는 용기있는 안무가의 컨템포러리 창작작품에 격려와 박수갈채를 보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4. 지원금 제도에 의존하는 한국 컨템포러리 춤의 한계

지난 1990년대 초 이후, 대학 무용과 출신들로 구성된 동문 무용단의 폐쇄성과 획일화된 스타일로부터 벗어나려는 컨템포러리 춤 안무가들은 어떤 고정된 단체보다는 개인이름을 중심으로 나름대로 제 각각 다채로운 활동을 해 왔다. 교수 안무가와 차별성을 표면화하기 위해서 <독립 안무가>로 불리기도 하는 이들은 주로 프로젝트 형식을 추구하면서 작은 지원금이지만 기꺼이 자신의 경제적 부담을 더해 보태며 열악한 창작환경 속에서도 어렵게 현장에서 살아 남았다. 이윽고 독자적인 춤 미학과 자신의 작품 스타일을 가진 독립 안무가들의 활동이 평단과 관객들의 눈에 띄면서 이들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는 동안 한편 동문단체들로부터의 이탈이 점차 가속화 되었다. 컨템포러리 춤 안무자들은 무용단보다는 프로젝트 형식과 안무자 개인 작업을 중심으로 확장되었고, 이제는 일반화되기 이르렀다. 주로 소수의 인원으로 작업했던 이들은 동문 무용단과는 다른 행보와 안무성향을 보여주긴 했지만 자신의 춤 미학을 명확하게 표출시키진 못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들의 춤은 어쩌면 불완전하고 열악한 작업환경 탓에 연속성이 부족한 경제적 여건에서 확실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평가 된다.

최근 2010년을 넘어오면서 이러한 구조에 변화의 조짐이 확실히 눈에 띈다. 여러 지원제도들이 공연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대학 중심의 춤예술 작업에서 탈피하면서 직업 무용단들을 중심으로 대중화, 상업화, 사회화를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기에 이른다. 또한 한국 공연예술센터 (한팩)의 설립이나 예술경영지원센터나 재)전문무용수 지원센터와 같은 지원기구의 창립, 국립현대무용단 창단, 그리고 공연장 상주단체 제도 및 사회적 공기업 도입 등 컨템포러리 창작춤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제도들이 문화정책의 변화와 함께 가시화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공연중심의 춤, 프로페셔널한 체제로서 변모할 기본적 틀과 모양새를 다듬어 가고 있다. 세계 춤의 대열에서 당당히 활동하기 위해 또한 국내에서도 사회적 인식을 위해서라도 더욱더 프로단체들을 필요로 하는 시점임에 틀림이 없다. 더불어 이러한 춤의 제도적 변화는 컨템포러리 춤의 발전과 예술적 성과를 위해 또한 무용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무용학과 폐지 및 통폐합에 따른 대학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춤계가 전문화, 직업화, 세계화 실천이라는 절대 절명의 과제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춤의 미래가 결국 깨어있고 실천하는 안무자와 무용가의 작업(작품)

에 달려 있다는 엄연하고도 명백한 논리가 새삼 피부 속으로 스며 든다. 이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 문화예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을 비롯한 여러 지방 자치단체 문화재단들의 지원사업 제도의 변화와 메세나 차원의 기업 후원을 통한 한국 춤의 세계 무대 진출과 함께 수요와 공급이라는 대중화 잣대의 시장논리를 잠재울 수 있는 춤예술적 성과의 힘이 생길 것이다. 아울러 춤 미학적인 이론과 연구 작업, 그리고 학문적 커리큘럼 개선 및 예술 교육의 방향전환에도 암묵적으로 크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5. 나오면서

한 국가의 문화예술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인정하는 기준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무용장르의 경우, 바로 창작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면 괄목할 만큼 탁월한 안무능력을 갖춘 춤작가를 얼마나 배출했느냐에 달려 있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다. 아울러 안무가의 역량을 파악하는 근거는 컨템포러리 창작 작품, 다시 말하자면 지속적으로 재현할 가치를 지닌 레퍼토리 확충이라고 피력해 본다. 세계무대에서 소통될 수 있는 춤 레퍼토리는 또 하나의 국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만큼 국가홍보적 차원의 스펙타클한 규모의 볼거리 보다는 그 깊이 넘치고 내실 있는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가 무척이나 소중한데다. 특히 우리 안무가들에 의한 독창성 있는 레퍼토리의 개발에 있어서 한국 춤에 내재된 호흡과 원리적 특질이나 한국문화의 고유한 전통적 색채는 상당히 세계인들의 감성과 기호를 자극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을 새삼 강조하고 싶다.

한국 컨템포러리 춤이 세계주류 무대에 진출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필요충분 조건이라면 진취적이고도 전략적인 그리고 세련되고 유연한 문화예술적 기교와 사고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첨언하고 싶다. 이를 위해서 기획과 홍보 마케팅 분야의 안목과 식견 있는 전문 인력 및 시스템 확보와 효율적 배치가 우리무용계에 너무도 시급하고도 필요한 사안이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들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전 세계가 소리 없는 문화전쟁 중이라면 세계 전역에서 열광하고 있는 K-POP이라는 대중예술 분야를 뛰어 넘어 신 한류 클래식 문화의 최전선에 한국적 컨템포러리 춤의 위상과 파급력이 멀지 않아 세계 시장에 당당히 자리매김 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글로벌 시대를 이끄는 우리 한국 현대춤의 예술적 미래가 의식 있는 춤작가들의 스스로의 실천과 함께 타당하고 과감한 정책적 관심과 공공 지원에 달려 있다고 역설하면 지나치리만큼 <우리 춤문화의 힘>을 믿는 필자만의 근거 없는 외람된 생각일까?



Memo





성공적인 홍보를 위한 10가지 TIP

장 광 열 (춤웹진 편집장)



전문무용수지원센터 행정인력 ACADEMY

성공적인 홍보를 위한 10가지 TIP

장광열 (춤웹진 편집장)



강의 구성

- Example
- Experience
- Case Study
- Advice

01 기업경영과 예술경영

- New York City Ballet & Japan



02 매체 공략

어떻게 홍보 매체에 접근할 것인가?

Kore-A-Moves 2010

한국 10개 무용단
유럽 8개국 11개 도시 13개 극장 연속 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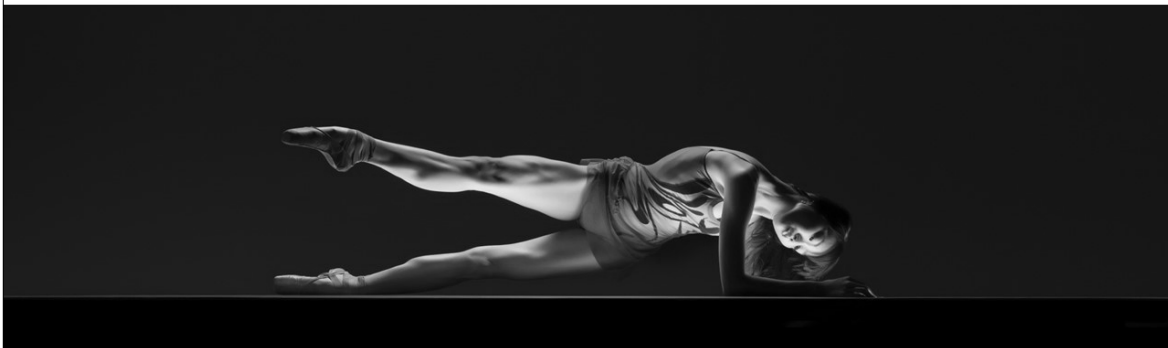
03 사진 선택과 광고 지면 확보

국내 19개 해외 13개 주요 언론사 매체에 보도됨



04

홍보 인쇄물 제작과 배포



05

온라인 & SNS 홍보

06

공연 팸플릿의 이면

07 보도자료의 명암

08 humane and more humane



09

Step by Step

Work Process/Showing/Networking



10

Interesting of Aartists



홍보 담당자를 위한

ADVICE

예술단체의 기획 홍보 마케팅

김 세 영 (유니버설 발레단 공연사업팀 P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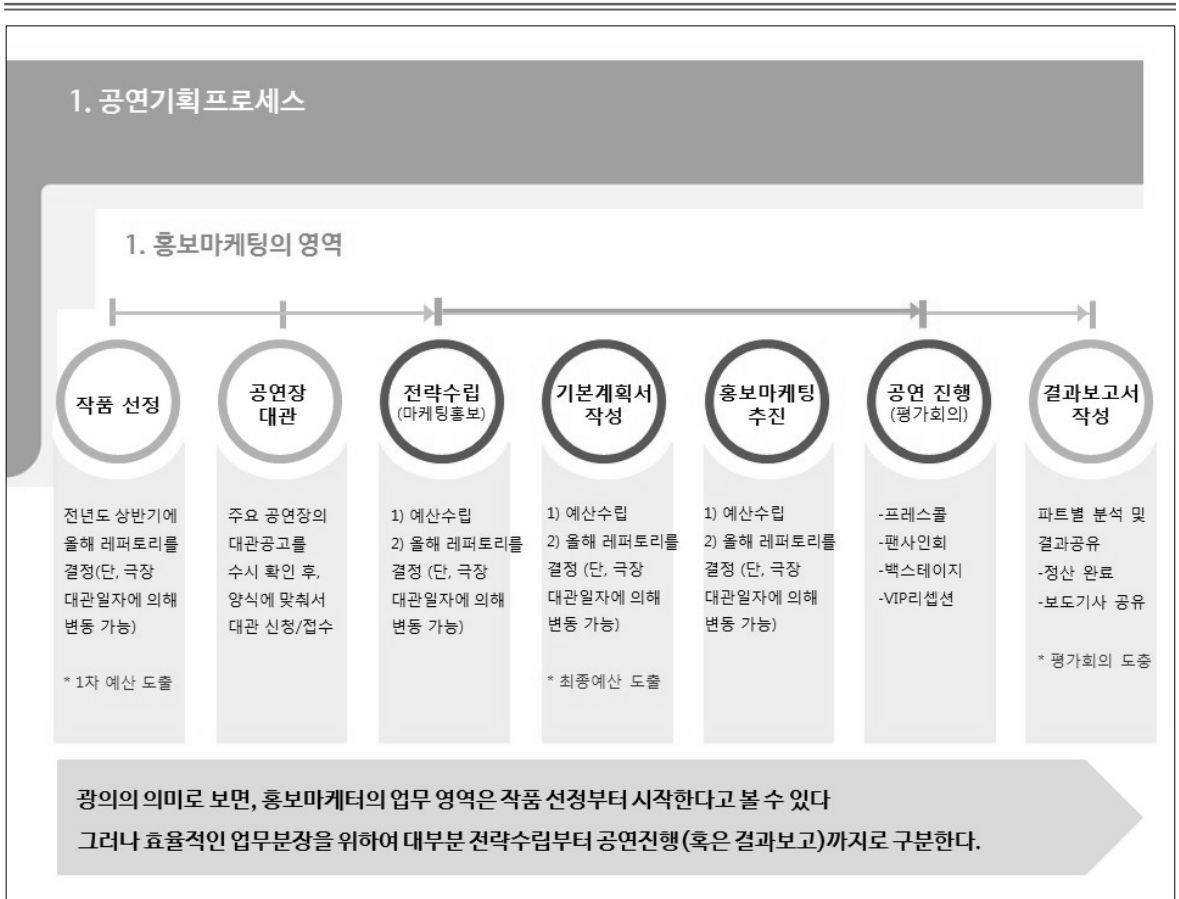
무용수를 위한 행정 인력 아카데미

28th. June. 2016 15:00~16:50 | 대학로 예술가의집

유니버설발레단
공연사업팀 김세영 PD

1

공연기획



2

홍보마케팅

II. 홍보마케팅

1. 언론홍보

가.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진행순서 : 주요 이슈 발굴 → 보도자료 작성 (공연사진 5~6컷 선택) → 최종 컨펌 → 보도자료 배포 및 웹하드 업로드 → [필수] 매체별 보도자료 수시 확인/공유 → 개별 기자 연락(관계유지) → 보도자료 스크랩
- 일간지
 - 배포시기 : 공연 개막 30일 전
 - 보도 종류
 - 1) 공연 보도자료 : 개요, 주요 이슈 부각, 작품 소개, 줄거리, 출연진 및 안무가 소개 (사진 필수)
 - 2) 특별 보도자료 : 공연 외 이슈 (단체장/무용수 및 단체 등 수상, 결혼, 사회공헌 등)
 - 3) 기타 보도자료 : 관계자 인터뷰 혹은 기고/칼럼/사설 등
- 매거진(월간지/주간지/계간지)
 - 배포시기 : 공연 60일 전 (마감: 매월 15~18일경으로 익월 매거진 원고를 마감한다)
 - 공연개요를 바탕으로 화보&인터뷰를 병행하는 등 매체별 사전기획을 통해서 컨셉을 정해 제작.
 - 그 외 단순 이슈의 경우, 기본 보도자료와 사진 전달
- ※ 최근 기자들이 자주 교체되기 때문에 홍보담당자는 수시로 리스트 갱신작업을 해야만 한다. 무엇보다 주요 기자단은 수시로 관리하면서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II. 홍보마케팅

1. 언론홍보

나. 인터뷰 진행

- 진행절차 : 인터뷰 섭외 요청 → 상세내용(취재의도, 컨셉, 취재일시 등) 확인 → 상부 보고 및 컨펌 → 인터뷰이와 사전협의 → 스케줄 확정 및 질문지 요청 → 인터뷰 진행 → 결과 공유
- * 촬영 진행시 내/외부 여부에 따라, 모든 유관파트와 정보 공유는 필수.

다. 매스컴 관련 각종 촬영

- 공연 홍보 촬영 : 공연에 따라 주요 출연자들의 포즈 촬영진행
 - 사진작가와 사전 촬영컨셉 결정
 - 출연자, 촬영장소(스튜디오 등), 헤어&메이크업, 의상(협찬 포함) 등 섭외
- 그 외 사진촬영 : 인터뷰 외 기자가 원하는 사진은 그때그때 조율해서 진행
 - 공연개요를 바탕으로 화보&인터뷰를 병행하는 등 매체별 사전기획을 통해서 컨셉을 정해 제작.
 - 그 외 단순 이슈의 경우, 기본 보도자료와 사진 전달
- ※ 모든 사진은 크레딧을 명확히 노출 요청을 하고, 매체마다 중복되지 않도록 다양한 사진을 구비한다. 사진별 크레딧 명기를 미리하는게 편하다. (ex. 백조의 호수_2막 왕자의 생일잔치_000_20160628)

II. 홍보마케팅

1. 언론홍보

라. 영상 촬영

- 공연 실황 촬영
 - 각 방송사와 연계해 개별 진행.
 - 촬영일은 캐스팅과 촬영석 확보에 따라 결정. 촬영일자가 확정되면, 모든 관계자들과 정보 공유
 - 리허설 및 백스테이지 촬영
 - 매체에 따라 현장감 있는 보도를 위해서 리허설이나 백스테이지 촬영을 요청하기도 한다.
 - 촬영일자 확정 전, 본 사항을 모든 관계자들과 협의한다.
 - 최종 촬영 협조문을 별도 공지해서 리마인딩 시키는 것도 센스!
- ※ 해외 라이선스의 경우, 공연 실황 촬영에 대한 계약 사항을 반드시 확인

마. 인맥관리 (기자/평론가/칼럼니스트 등)

- 가장 명확하면서도 어렵고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 사람관리이다. 담당자는 기자의 특성을 잘 파악해 세심한 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
 - 최근 기자들 교체시기가 3개월~3년 이상까지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다.
 - 기자관리는 주요 방송사/신문사 등 언론 파워가 높은 매체를 중심으로 우선 관리하는 것이 좋다.

**<그램 머피의 지젤>
프레스 콜 안내**

■ 일시: 6월 12일(금) 14:30-
 ■ 장소: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무대-
 ■ 내용: 리허설 촬영 (오케스트라 연주 드레스 리허설)
각각에 필수복 착용으로 참여요지 달라주세요. <->
 문의: 공연기획 ABC(가나다) 010-1111-2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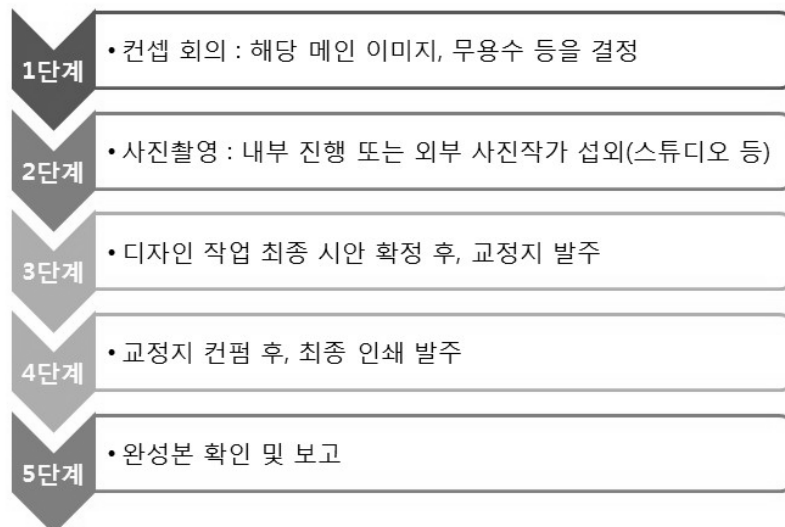
**<Graeme Murphy's GISELLE>
Press Call Notice**

■ Date & Time: Friday, June 12 / 14:30-
 ■ Venue: Seoul Arts Center, Opera Theater-
 ■ Details: Rehearsal Shooting -
 (Dress Rehearsal with Orchestra)-
Please do not enter the theater if you are not fully dressed up. <->
 Contact : ABC(가나다) 010-1111-2222-

II. 홍보마케팅

2. 홍보물 제작/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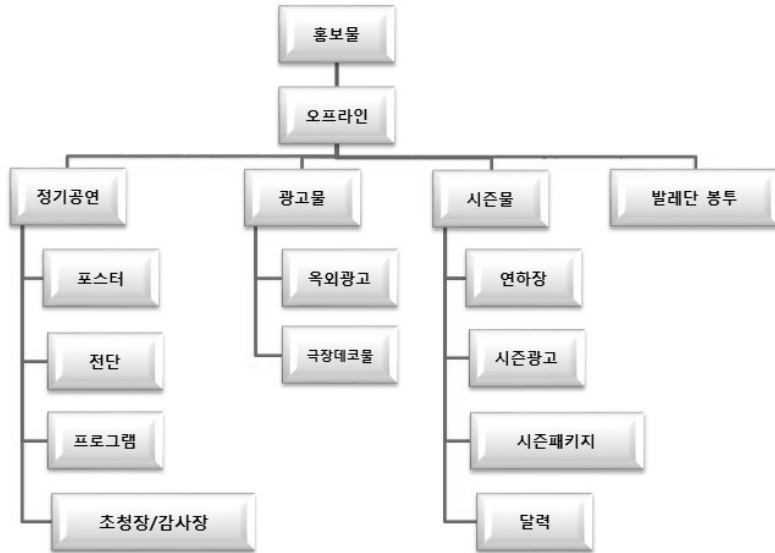
가. 작업절차



II. 홍보마케팅

2. 홍보물 제작/배포

나. 홍보물



II. 홍보마케팅

2. 홍보물 제작/배포

나. 홍보물의 종류

1) 포스터

- 공연 메인이미지로 주최, 주관, 협찬, 후원사 로고를 명시한다
- 포스터 사진 크레딧에 대해 반드시 명기한다
- 메인 카피(제목/부제목) 등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2~3가지 시안을 요청해 결정한다

2) 전단지

- 페이지네이션 작업 (보통, 2면 혹은 2~3단 접지형태로 제작한다)
- 공연사진의 경우, 캐스팅별로 노출될 수 있게 하고, 이후는 포스터와 프로세스 동일하다.

3) 프로그램북

- 진행절차 : 페이지네이션 → 컨펌 → 페이지 문안 작업 → 시안 확인 → 컨펌(공연 시작 1주일 전)
→ 교정지 발주 → 컨펌 → 인쇄물 발주 및 수령
- 프로그램 세부 내용
- 문안 :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 명단 : 부서별 명단 확인은 필수이며, 일자별 캐스팅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마지막에 최종 수정한다.
후원회 명단은 후원회 담당자에게 요청하고, 대관 공연장 명단은 대관담당자에게 요청한다.
- 프로그램북 광고 : 공연 및 후원회 담당자와 사전 협의한다

II. 홍보마케팅

2. 홍보물 제작/배포

나. 홍보물의 종류

4) 초청장 및 감사장

- 가) 초청장 / 공연 45일 전 발송 기준. 공연일로부터 최소 2~3주 전 제작을 진행
- 나) 감사장 / 공연 종료 1주일 이내 발송 기준
- 다) 연하장 / 12월 첫 주 발송 기준

5) 광고물

가) 옥외광고물

- 포스터를 기반으로 바リエ이션되는 광고물을 의미한다
- 광고 종류에 따라 가이드가 다르므로 광고 담당자에게 제작가이드와 마감일을 확인해 반영한다.

나) 극장 데코물

- 대관 공연장 내 사인물을 의미한다
- 당일 캐스팅 및 컨세션 판매용품, VIP룸 안내 등 POP가 해당된다
- 최근에는 랩핑 방식의 광고 데코물을 많이 활용하는데 사이즈 등 작업시 세심한 체크를 요한다

II. 홍보마케팅

2. 홍보물 제작/배포

다. 컨세션

- 기획사의 제작 기념품으로 일반판매 및 증정용으로 사용.
- 안정적인 재고운영을 위한 면밀한 관리 필요. (재고관리대장)

1) 자체 제작

: 수요조사를 통한 디자인 및 제작업체 선정작업 (견적서, 비교견적서)

2) 외주 제작

: 제작비 절감 및 재고부담에 따른 리스트를 줄이고자 기존 생산업체와 제휴하여 대행 판매 진행



II. 홍보마케팅

3. 온라인 홍보

가. 홈페이지

- 1) 메인 페이지 : 주력 프로젝트 우선 노출
- 2) 언론보도 : 주요 기사 매일 업데이트. 링크는 반드시 각 매체 url 로 반영해야 하며, 직접적인 신문스크랩은 불가.
- 3) 공지사항 : 캐스팅 변경과 같은 주요 소식 등 공지
- 4) 1:1 문의 : 고객응대가 가장 중요한 관문이므로 수시로 확인해서 질문에 즉각 응답



나. 뉴스레터

- 발레단 소식지 발송을 목적으로 공연 소식을 중심으로 발송.

다. 문자발송

-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안내/공지/공연홍보 등의 목적에 따라 문자 발송
- ※ 2015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의거하여 '광고' 명시 의무화.
- 미이행 시 300만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주의를 요한다.

II. 홍보마케팅

3. 온라인 홍보

라. 소셜 홍보

1) 페이스북 (facebook)

-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셜 채널 (오픈관계형 채널임)
- 업로드 내용 : 보도기사, 공연사진 및 영상, 리허설 사진, 이벤트 등
- 유료 광고도 가능하므로 선택적 이용 필요

2) 트위터 (twitter)

- 기본적으로 페이스북과 동일한 콘텐츠로 반영
- 링크 공유 시, 글자수 제한으로 URL단축사이트를 이용해 링크 공유

3) 유튜브(Youtube)

- 공연영상, 메이킹필름, 리허설 등 다양한 영상물을 홍보

II. 홍보마케팅

4. 광고

광고의 경우, 고비용이 발생되며 트렌드에 따라 새로운 광고틀이 계속 개발되고 있으므로, 작품 성격 혹은 주요 관객층에 접근성이 높은 광고틀을 선정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가. 집행시기

1) 옥외광고 : 통상 공연 30일 전부터 실시. 공연 2개월 전까지 매체선정 및 계약체결을 해야 함.

2) 극장광고 :

- 업로드 내용 : 보도기사, 공연사진 및 영상, 리허설 사진, 이벤트 등
- 유료 광고도 가능하므로 선택적 이용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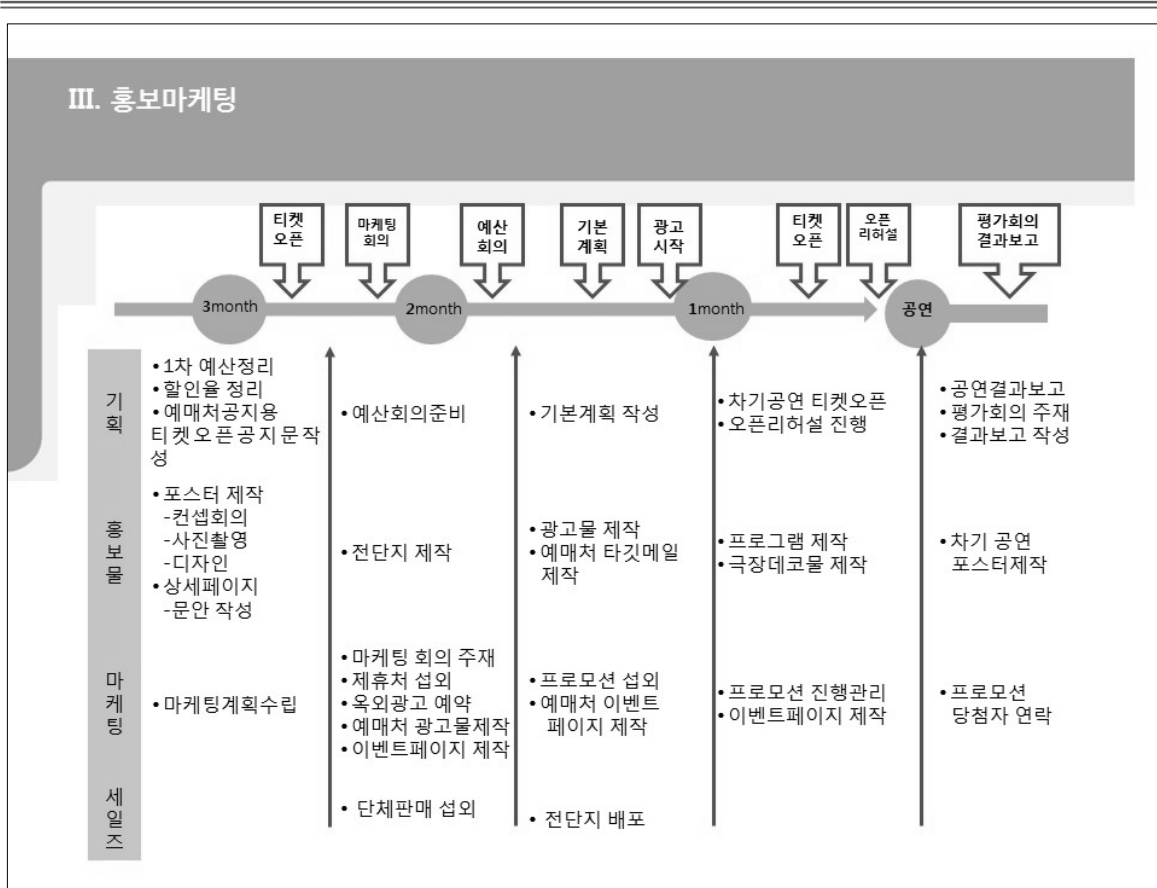
* 광고는 디자인 작업에서 출력 및 게첨까지의 시간이 제법 소요되므로, 광고물 제작기간을 확인해 광고집행일을 역순으로 산정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국가기금

기금신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https://www.ncas.or.kr/main.do>
- 국내공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중심으로, 서울문화재단과 같이 지자체 문화재단 지원사업을 탐색하면 된다.
(시/도 문화재단 지원사업은 각 지역 공연 사업만 인정된다.)
- 홈페이지 내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후 선정 여부를 확인
- 지원금이 확정되면 이후의 작업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안내에 따라 진행한다.
(교부신청서 작성 → 지원금 통장 개설 → 지원금 정산 → 결과보고서 제출)







행정인력 양성 아카데미

체험교육



한국무용 공연 행정 체험: 서울시무용단

발레무용 공연 행정 체험: 와이즈발레단

현대무용 공연 행정 체험: 고블린 파티

■ 참관 일정 ■

체험 분야	멘 토	김 민
	소 속	서울시 무용단 기획실장
한국무용 공연 행정 체험	한국무용 공연 행정 참관 · 일시: 2016년 7월 5일 (화) 오후 2시~5시 · 장소: 양천문화예술회관 · 내용 체험작품: 서울시 무용단 <여름빛 붉은 단오> 멘토링: 공연 진행을 위한 행정 업무 프로세스 지역 초청 공연 진행 행정 프로세스 지역 문화회관 공연 업무 특징 등	

체험 분야	멘 토	김길용
	소 속	와이즈 발레단 단장
발레무용 공연 행정 체험	발레 공연 행정 참관 · 일시: 2016년 7월 8일 (금) 오후 2시~5시 · 장소: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 · 내용 체험작품: 와이즈 발레단 동화발레 <신데렐라> 멘토링: 공연 진행을 위한 행정 업무 프로세스 문화예술시설 상주단체의 업무 프로세스 어린이 공연 업무 특징 등	

교육 분야	멘 토	지경민
	소 속	고블린파티 대표
현대무용 공연 행정 체험	현대무용 공연 행정 참관 · 일시: 2016년 8월 19일 (금) 오후 2시~5시 · 장소: 아르코 예술극장 소극장 · 내용 체험작품: 고블린파티 <은장도> 멘토링: 공연 진행을 위한 행정 업무 프로세스 민간무용단체의 공연 업무 프로세스 소극장 공연 업무 특징 등	

■ 참관 단체 공연 소개 ■

단오에 만나는 전설 같은 이야기, 서울시무용단 <여름빛 붉은 단오>

<여름빛 붉은 단오>는 서울시무용단의 2016년 첫 정기공연으로, 우리민족의 4대명절인 단오를 맞아 신윤복의 풍속화(風俗畵)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잊혀져가는 단오를 무대에 재현한다. 또한 단오의 세시풍속과 전통춤과 마당춤을 엮어 '이야기가 있는 무용극'으로 관객들을 찾아간다.

한국 전통춤의 대가들의 춤을 한 무대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

서울시무용단은 전통의 토대 위에 창작이 갖는 새로움을 잘 담아내고자 이번 무대를 위해 한국 전통춤의 대가들로부터 직접 전수받은 춤을 선보인다. 중요무형문화재 제 68호 예능보유자 하용부의 '밀양북춤', 일본 최승희 무용연구원 대표 백홍천의 '장검무', 백현순의 '덧배기춤', 배정혜의 '부채춤'과 '장고춤', 정인삼의 '소고춤' 등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극의 내용과 전통춤이 함께 어우러진 옛 시대의 모습을 재현해내기 위해 전 서울시극단장과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를 역임한 김석만이 연출을 맡아 무대의 완성도를 높였다.

주요줄거리

옛 어느 마을에 당산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를 몹시 사랑하는 '천지'와 '신명'이 있었다. 이들은 나무를 무척 사랑했고 항상 당산나무 아래에서 사랑의 춤을 추며 서로 사랑을 나누기도 한다. 하지만 마을사람들 중엔 여러 가지 이유로 나무를 베어버리려는 무리가 있다. 신령한 당산나무를 모시는 무녀는 제를 올리고, 당산나무에 처용부적을 부치며 나무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을 개발을 위해 나무를 베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나무를 훼손하자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며 번개를 맞은 '신명'은 돌이 되고 마는데....

주요스태프

예술감독 및 총괄안무 예인동
 연출 및 각색 김석만
 원작 홍란주
 작품 배정혜, 정인삼, 백홍천, 하용부, 백현순 등
 지도 전진희, 한수문
 출연 서울시무용단
 연주 서울시국악관현악단
 구음 정영만(남해안 별신굿 예능보유자)
 서체 장사익

서울시무용단 공식 SNS

(ci)페이스북 [facebook.com/seoulchoom](https://www.facebook.com/seoulchoom)
 (ci)블로그 blog.naver.com/seouldance
 (ci)옐로우아이디 @서울시무용단

■ 참관 단체 공연 소개 ■

와이즈발레단 <신데렐라>

■ 개요

- 공연명 : 와이즈발레단의 『신데렐라』
- 공연일 : 2016년 7월 8일(금) 오후 8시 , 7월 9일(토) 오후 5시
- 공연장 :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
- 주최/주관 : 마포문화재단, 와이즈발레단
- ‘이 공연은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세부 내용

유럽에서 구전되어 온 대표적인 동화 “신데렐라”는 어린아이들에게 동심과 희망을 담아 교육과 감수성 충전을 한번에 충족시키는 작품으로 와이즈발레단만의 특별한 선물을 담아 꿈과 환상이 담긴 동심의 나라를 펼쳐진다.

- 공연의 특징

① 아이들도 좋아하는 재미있는 스토리!

신데렐라의 유리 구두를 찾아주는 왕자와의 로맨틱한 스토리는 아이들에게도 즐거울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생동감이 넘치는 동화의 나라로 이끌어 준다.

② 생동감 있는 캐릭터와 동화적인 환타지!

계모와 이복언니들의 코믹한 마임들과 마법의 힘을 빌린 화려한 궁전으로의 초대 그 재미를 한층 더하게 된다. 특히 계모와 이복언니 등 솔리스트들의 캐릭터 댄스는 재미를 더하고, 호박이 훌륭한 마차로 변하는 모습은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③ 구성 및 스토리 (총3막 7장)

*줄거리

계모와 이복 언니들에게 구박받던 신데렐라 앞에 꿈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름답게 변신한 신데렐라는 호박에서 마차로 변한 예쁜 마차를 타고, 무도회에 참석합니다. 무도회에서 왕자와 즐겁게 춤을 추던 중 12시가 되어 황급히 집으로 돌아오다 한쪽 유리 구두를 잃어버립니다.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는 왕자는 신데렐라와 재회하게 되고, 신데렐라는 유리구두의 주인공이 되어 왕자와 행복한 결혼식을 올립니다.

*구성

- 1막 1장 : 신데렐라의 집(Cinderella's house)
- 1막 2장 : 요정의 정원(Fairy garden)
- 2막 1장 : 궁전 무도회(A hall in the palace)
- 2막 2장 : 신데렐라의 집(Cinderella's house)

■ 참관 단체 공연 소개 ■

고블린 파티 <은장도>

[단체소개]

비상한 힘과 재주로 사람을 홀리기도 하고 짓궂은 장난이나 심술궂은 짓을 많이 하는 한국의 도깨비를 단체의 상징으로 삼고 활동하는 Goblin Party는 2007년 창단되어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특별한 대표 없이 전 멤버가 안무자 겸 무용수로 소속되어 공연되어지는 작품의 안무자가 그 프로젝트의 리더를 맡아 활동하는 단체이다. 관객과의 소통에 가장 큰 중점을 두되, 관객의 시각을 확장시킬 수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있다.

[은장도 작품내용]

방향제안 : 임진호, 지경민

출 연 : 임성은, 이경구, 안현민, 이연주

옛시대부터 여자는 사실 무엇으로든 남자보다 위치가 낮았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시선 자체가 여자가 남자보다 아래고, 심지어 그것에 대해서 여자들도 수긍하며 살았잖아요. 그래서 죽음에 있어서도 그런 게 보이는 게, 옛날에 남편이 아내를 잃으면 딱히 붙는 명칭도 없고 다들 되려 쉬쉬하는 편이고, 그런데 여자한테는 과부라는 명칭이 붙고 죽은 남편을 기리기 위해서 일평생 정조를 지켰다는 열녀문? 맞나요? 그런 것들로 여자들에게 교육법처럼 내려오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더 조장한 것 같아요. 이런 명칭들로 여자를 판단하는 게 알고 보면 옛 시대에서 내려오는 남아선호사상이런 것으로 더욱 여자가 느끼는 감정, 죽음에 관해서까지 사회가 깊이 파고들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규율 안에 어쩔 수 없이 있는 여자들한테 행사하는 사회의 폭력같게도 느껴지고요. 그런 시선들 때문에 과부가 마치 여자가 겪는 슬픔의 과장, 극악의 슬픔처럼 꾸며져 있기도 하고요. 어떤 감정이 극으로 치달았을 때 밖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여자가 예뻐 보이는 것 이상으로 그 사람이 너무 잘 보여서 여자로서 섹시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한테는 허벅지를 찌르면서 슬픔을 참는 과부가 사실 원시인이나 양반처럼 역사적 인물로 느껴져요. 저희 엄마가 과부이고 저도 가까이서 엄마를 지켜봤는데, 사람마다 슬픔을 표현하는 것도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이틀 내내 우시다가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장례식장을 다 뒤엎고 난리를 치셨어요. 여자한테 저런 힘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사실 엄마를 현대의 과부라고 따로 생각하진 않지만요. 아무튼 제 인식에서는 과부가 약간의 반항도 있고 역사적 인물에 가까운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Memo



| 기관소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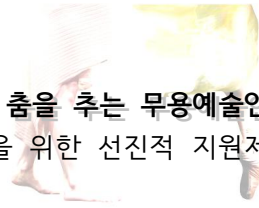


재단법인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는...

기초예술, 순수예술로서의 무용의 기본 요소인 인적자원인 무대에서 춤을 추는 무용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무용예술인 일자리 창출, 복지 증진, 창작활동 개선을 위한 선진적 지원제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6년 지원사업

전환

상해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무용을 직업으로서 유지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은퇴를 할 수 밖에 없는 무용예술인이 무용 외의 직업을 선택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무용예술인 직업개발 및 전환을 지원합니다.



직업전환 지원금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금은 무용수 경력에 따라 차등지원 됩니다.
 잠깐! 지원금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센터로 문의바랍니다.

재활&예방

공연 중 부상당한 무용예술인이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받아 건강하게 무대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병원 진료비 일부 및 재활 치료비를 보조하는 상해재활 지원과 무용공연 또는 연습 시, 재활트레이너 파견하여 재활 마사지 및 테이핑을 실시하는 상해예방 지원을 통해 무용예술인의 복지를 지원합니다.

상해재활 지원금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금은 무용수 경력에 따라 차등지원 됩니다.
 잠깐! 지원금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센터로 문의바랍니다.



상해예방(단체) 지원금 최대 ₩1600만원까지!

잡마켓

댄서스잡마켓 지원을 통해 무용예술인 창작환경 개선하고 무용단의 구인구직과 무용수의 구직란 해결을 돕습니다.

잡마켓 지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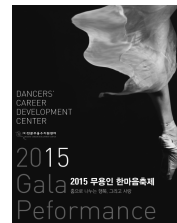
단체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금은 작품 및 공연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됩니다.
 잠깐! 지원금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센터로 문의바랍니다.



대중화

심포지엄, 무용인 한마음축제 등을 통해 무용예술의 대중화를 꾀합니다.



전문무용수의 기회! 선택! 도전!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는 무용수의 상해재활 및 예방과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전해 주신 기부금은 무용수가 좀 더 나은 조건에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중하게 쓰일 것입니다.

재) 전문무용수지원센터 기부금 모금

귀하의 소중한 기부가



“춤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듭니다.

귀하의 기부금은 이런 목적에 의해 필요합니다.

1

- 무용수의 복지와 취업 등을 돕는 지원 활동을 위한 사업전개
- 무용수 실태조사, 대중에게 다가가는 무용 강좌 등의 사업 전개
- 무용활동의 활성화 도모

2

- 대중을 위한 무용보급 확대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지향
- 무대공연 중심의 무용활동을 사회 전반으로 확대하여 무용을 통해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

귀하의 기부금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 우수 무용수 양성, 무용수 교육, 공연, 연습 등 무용활동 지원 사업에 국한하여 사용됩니다.
-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엄격히 기부금의 사용 용도를 지정하고 집행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집행하고 감사의 보고를 통해 기부금의 적정 집행 여부를 통제합니다.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를 후원해주신 기부자님, 고맙습니다!

하나은행, 274-910005-14104

예금주: 재단법인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서울 종로구 동숭길 122, 동숭아트센터 5층 502호

☎ 02) 720-6202 / Fax : 02) 720-6272

E-Mail : dcdc@dcdccenter.or.kr

Homepage : www.dcdccenter.or.kr

Blog: blog.naver.com/dcdc6202

Twitter : @Dancers_Job

Facebook : www.facebook.com/dcdccenter